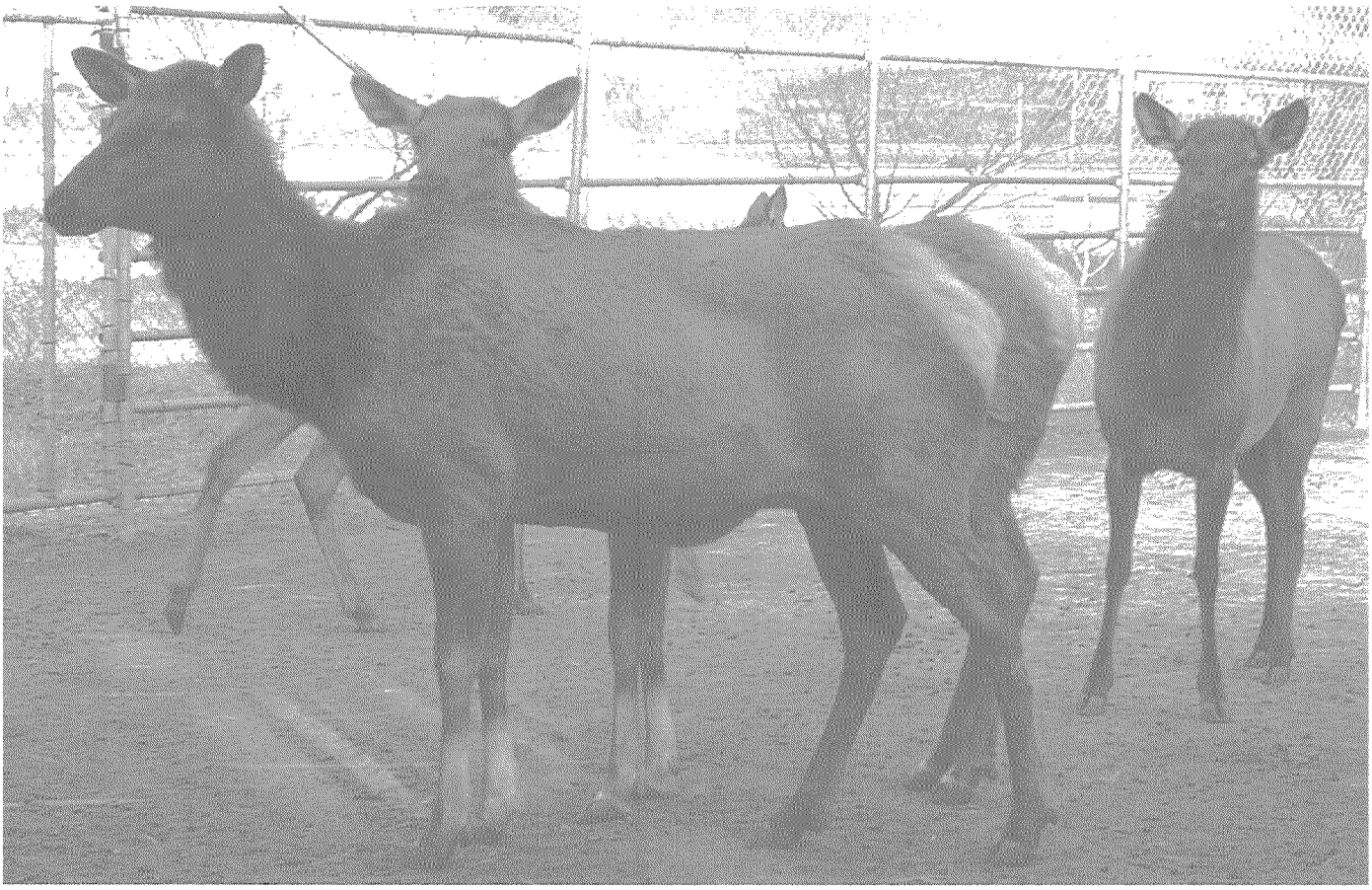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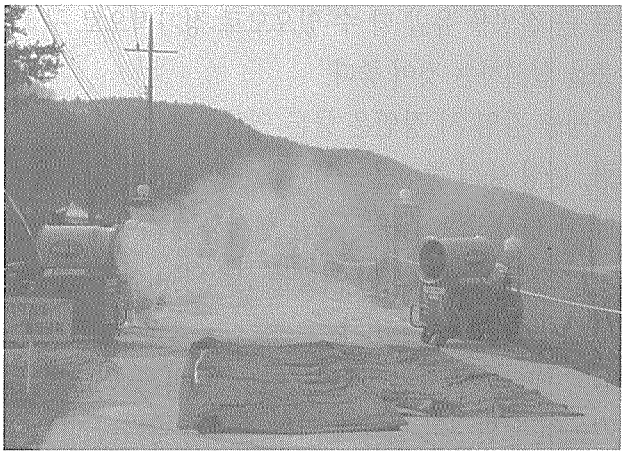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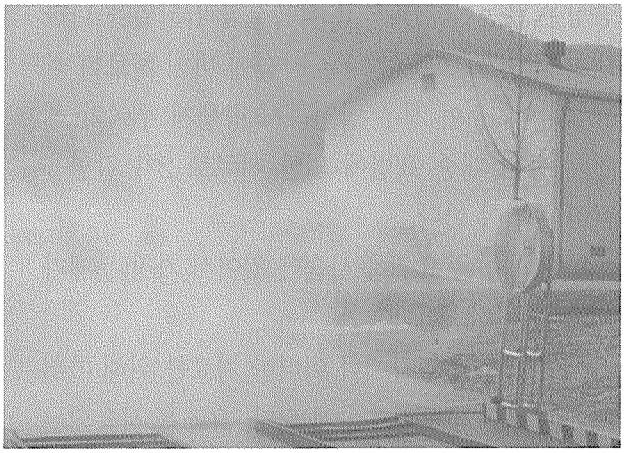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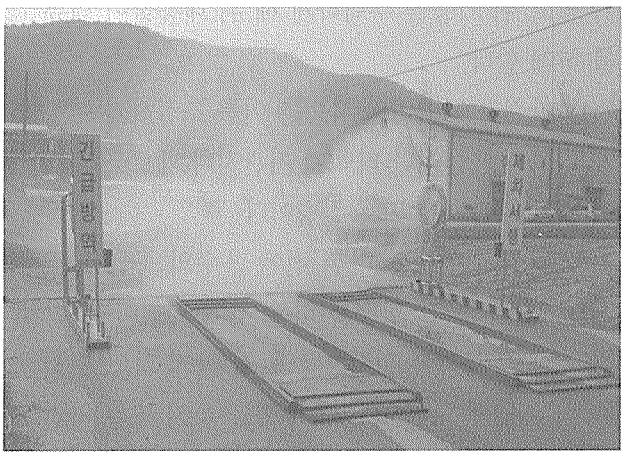
사슴 목장의 청결 유지는 건강한 양록 산업에 기여한다.

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처음으로 농림부 지원을 받아 방역 책자를 발간, 전국 순회 '사슴질병 방역관리 교육'을 실시 했다. 사슴의 질병 정보 및 방역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업계의 귀감이 되었던 '사슴질병 방역관리 교육' 의 내용 일부를 발취, 재구성해 소개하고자 한다.

양록 농가의 주요생산물인 녹용을 위생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슴의 질병을 막고 건강한 사슴을 사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슴의 질병은 외상에 의한 감염이나 영양의 부족과 과잉으로 인한 대사 장애, 나이에 따른 장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 관리소홀 등에 의한 외상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슴에서 주로 발생하는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대사 장애와 구충과 피부질환의 방역에 대해 살펴본다.







위생의 시작은 사육장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

사슴의 질병의 요인 중 사육장의 환경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육장의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면 질병 예방은 물론, 녹용 생산 시에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한 대사 장애는 질이 좋지 않은 사료나 엔시리지 등을 사용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 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자록은 성장 미숙, 암 사슴은 불임이나 유사산, 수사슴에서는 허약 체질로 변화 되어 질병에 감염되거나 녹용의 성장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사료부족이나 저질사료에 의한 영양의 불균형, 밀집사육, 열악한 환경, 더위, 스트레스는 사슴의 영양의 섭취를 가로막게 되어 영양소가 체내 합성이 되질 않는다. 이로 인해 생산 감소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피부질환은 영양대사 장애에 의한 털이 거칠어지고 빠지게 되거나 외부기생충인 옴, 진드기, 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겨울철에 외부기생충은 사슴에 기생을 하면서 영양분을 빼앗고 이로 인해 사슴은 털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털이 빠진 사슴은 겨울철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부기생충에 의해 영양분의 섭취가 되질 않아서 여러 가지 질환에 감염될 수도 있다.

구충실시는 기생충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역 중 하나이다. 기생충 감염은 2차적으

로 큰 질병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구충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기생충 감염 시 장염은 물론 영양불량 및 성장불량, 변형 등의 증상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경구 구충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과 체온유지이다.
급성 폐렴은 자록이나 허약한 사슴에서 주로 주변 기온이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갑자기 나타나기에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증상은 운동을 기피하고 식욕결핍과 고열을 나타내며 육안 시 호흡이 다른 사슴에 비해 빠르며 불규칙적이다. 이 경우 발견즉시 항생제 투여와 해열제 등의 대중 요법에 의한 치료로 2차 감염을 막아 주어야 한다.
오연성 폐렴은 요즈음 사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이다.
사슴의 특성상 절각이나 어떠한 치료를 위해 마취 시에는 마취약을 사용하게 된다. 요즈음 사용되는 마취약의 주성분은 xylazine이다. 이는 타액분비가 많고 위 기능을 무력하게 해 위 내용물이 역류를 하게 한다.
전신 마취가 되어버린 사슴은 이를 조절하기 어렵게 되고 내용물이나 타액이 기관지나 폐로 흡입되어 주로 나타나게 되는 질병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마취 전에 음수의 공급을 12시간에서 24시간 절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마취 시에는 사슴이 왼쪽으로 눕지 않게 하고 머리를 너무 낮게 하는 것보다 수명을 유지 또는 약간 낮게 하는 것이 좋다.
의심되면 역류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겠다.

목장 관리는 방역의 필수!

사슴장의 관리는 질병과 관련이 많으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사슴장이란 사슴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영역이다.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사슴장안이 배수가 안 되고 질척거리게 되어 성록은 물론, 자록에게도 치명적이게 된다.
사슴장안이 너무 지저분하고 습하면 곰팡이성 피부병은 물론 자록의 설사를 유발 할 수 있고, 암사슴은 요로감염과 외부기생충의 번식 등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사육시설인 철망이나 내부시설이 노후 되거나 잘못 설치되면 발굽 질환이나 외상 파상풍 등을 초래할 수 있고 급수시설이나 불량인 경우는 소화기 장애나 비뇨기 계통의 질병을 초래하므로 급수시설의 정비는 물론 깨끗한 음수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료 통이 더러운 경우는 청소를 하고 급여하여야지 더러운 것이 남은 상태에서 급여하면 부패가 되어 치명적인 질병으로 전이 될 수 있다. 요즈음 사슴 장들은 작고 지붕을 덮게 되는데 사슴에서는 일정한 일조량과 환기 및 소독 등이 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중간 중간에 썬 라이트를 설치하고 지붕을 높게 하여야 일조량도 있고 환기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